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3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362호

법석 초대

화산 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내 말과 행동,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화두를 들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성보박물관 '기준 미달' 많아

전문인력 30곳중 8곳, 7곳 항온 항습시설 없어

"관리체계 일원화 · 정부지원 절실"

◆사찰박물관 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

사찰명	항온 항습	전문인력
월정사	○	2명
수덕사	○	1명
해인사	○	없음
금산사	○	1명
동화사	×	없음
쌍계사	○	1명
백양사	×	없음
통도사	○	5명
직지사	○	2명
송광사	○	3명
대흥사	×	없음
법주사	×	없음
기림사	×	없음
옥천사	○	없음
표충사	×	없음
부석사	×	없음
도갑사	○	1명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지원으로 94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사찰 성보박물관 30곳의 상당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26일 조계종 주최로 열린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홍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은 "상당수 사찰박물관이 유물의 성격이나 수량, 해당 사찰의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 없이 지어지다 보니 당연히 갖춰야 할 전문인력과 항온 항습 시설, 충분한 전시공간과 수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사찰박물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17곳 가운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8곳, 16명에 불과해 안정적 유물 관리와 효율적 전시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유물 보존에 필수적인 항온 항습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7곳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정부 예산으로 지어놓고 본다는 식으로 사찰측에서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지만, 개관한 뒤 드는 막대한 운영 예산을 사찰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항온 항습 시설의 경우 설치비도 고가지만 운영비가 만만찮아 설치 후에도 가동을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홍선 스님은 "박물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능동적으로 적용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관계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최성은(덕성여대) 교수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찰박물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보면 사찰박물관이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서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 교수는 "종단이 먼저 해야할 일을 선행해야 한다"며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찰이 일정한 후원금을 모금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범하 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도 "사찰박물관은 일반 사립박물관과는 구별돼야 하며 마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행자 236명 '깨달음의 길' 서원

"번뇌 끊고 부처님 지혜 이어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조계종 제22기 행자교육원이 20일 직지사에서 개원돼 4월1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182명 여행자 94명 등 모두 276명이 입교. 이 가운데 남행자 35명, 여행자 5명이 탈락, 236명이 최종 입방했다. 직지사= 고영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하철역 '자비의 말씀' 훼손 심각

지하철 포교단체인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원)'가 21일 발표한 '자비의 말씀' 게시판 훼손 실태에 따르면, 2001년 1년 동안 파손된 게시판은 총 45개로 월평균 4건 수준이었으나 올 3월 들어서만 13개의 게시판이 훼손돼 3배 이상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껌을 붙이거나 아크릴을 흠집내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최근에는 게시판 아크릴과 포스터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사진은 서울 둔촌동역 게시판)이다. 더 심한 경우는 도구를 이용해 게시판을 파손, '훼불' 수준에 이르고 있다.

훼손 형태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의 월배역 등 일부 역에서는 파손으로 인한 교체 직후 재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1개 노선의 104개 게시판에 모 대중목욕탕의 불법 선전 스티커가 부착돼 게시판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스티커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는 다른 게시판에는 전혀 부착되지 않고 '자비의 말씀' 게시판에만 부착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훼손임을 짐작케 한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역 115개소에 460여개가 설치된 이래 450개소, 1600여개로 늘어났다. 1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950여만명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불교의 대외이미지 개선과 포교 효과를 얻고 있으며, 지하철 포교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게시판 훼손 사건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불자들이 '자비의 말씀' 게시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지하철 포교에 대한 무관심이 훼손 증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비의 말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포교용 게시판으로서 불자 모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박봉영(취재1부 기자)

'한국불교문헌록' 발간

불교학 연구 기초자료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국내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이 결집된다.

동국대 두뇌한국(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은 19일 2006년까지 <한국불교문헌목록(가칭)>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헌목록 정리 작업은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불교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문헌목록>은 역대 강백들의 현존 저술뿐 아니라 현대에 발간된 관련 논문과 단행본 등 최근 연구성과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단순히 목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한글 해제까지 단다.

조용길(동국대 도서관장) 단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학원 불교학과 지망자와 연구 논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매년 두 차례 국제 영문 불교학술지 발간,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수행환경 파괴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조계종, 정부에 촉구 결의문

조계종 중앙종회가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 · 23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20일 254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161억8천여만원) 세출(144억 1천여만원) 결산 승인, 종책질의, 종무보고, 동국학원 승려이사 정관대로 이행 촉구결의 등 12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 153회 임시중앙종회를 폐회했다.

종회는 또 원로회의, 사면복권,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종헌 종법 개정의 건을 다음 임시종회로 이월, 최우선하여 다루기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월 착공

18일 건축 허가,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4월경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다.

조계종은 18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전달받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외형을 유리구조로 처리하는 등 새롭게 설계(조감도 참조)된 불교역사기념관은 지하4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 1,375평, 건평 694평이다.

지하 1층에는 전시실이 들어서고 지하 2층은 공연장, 지하 3층은 수장고,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층 불교문화정보센터, 지상 2층 대회의실, 지상 3층 멀티미디어라이브러리, 지상 4층 총무원장 집무실 및 회의실이 갖춰진다.

특히 별관건물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 회의장이 마련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출가

1. 불자님께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①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어서 ②산사에 살고 싶어서
   ③세상살이가 고달파서 ④실연등 마음의 고통 때문에 ⑤기타

설문 참여: 3월 2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3호 9면에 싣습니다.